

“송진우, 좌우 공존 중용정치로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에 헌신”

정충신 선임기자 입력 2025. 5. 7. 11:48

탄신 135돌·타계 80돌 행사
독립운동·정치역정 강연도



3·1운동의 '막후 설계자'이자 진보적 자유민주주의의 기틀을 다진 독립운동가 겸 언론인 고하(古下) 송진우 선생(1890~1945·사진)의 탄신 135주년 및 서거 80주년 추모식이 8일 거행된다.

추모식은 이날 오후 3시 30분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이사장 김창식) 주최 및 국가보훈부·동아일보사 후원으로 열린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추모사, 강정애 보훈부 장관과 김병로 선생 손자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약전봉독을 한다. 송진우 선생은 3·1운동을 주도해 옥고를 치렀고, 중앙학교 교장과 동아일보 사장 등을 역임했

다. 1945년 광복 후 한국민주당을 조직해 활동하다가 암살당했으며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됐다.

이택선 명지대 교수는 '해방 직후 고하의 자유민주주의 건국을 위한 구상과 행동' 주제 강연에서 "고하는 해방정국에서 한국민주당을 이끌며 좌·우가 공존하는 중용적인 정당 정치의 장을 마련하려고 했다"며 "그 속에서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건설을 꿈꾸었다"고 평가했다.

독립운동가이자 정치가인 조병옥은 고하를 '고매하고 활달하며 정치적 역량이 풍부한 존재'로 묘사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주위 지식인들로부터 외국의 최신 뉴스와 정보를 듣고 있던 그는 일제의 패망과 조국의 독립을 확신하며 해방 이후를 준비했으며, 해방정국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절대 지지론'을 주장하며 한국민주당의 창당과 활동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정충신 기자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